유럽 번역가콜레기움 스트랄렌
(Das Europäische Übersetzer-Kollegium in Straelen)

<스트랄렌 번역 콜레기움>은 번역하는 법을 배우는 곳도 아니고 번역 일을 맡길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. 오직 번역을 할뿐입니다. 그것도 매우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번역작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문학작품의 번역계약을 맺은 전 세계의 번역가들이 스트랄렌을 방문하여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고 동료와 만나며 함께 작업하는 가운데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합니다.

처음에는 소박한 비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. 문학번역가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. 어느 한 국경도시에 세계시민적 교류와 대화가 가능하며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보자는, 즉 다양한 문자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집을 짓자는 꿈이었던 것입니다.

실현가능성을 면밀히 타진한 지 35 년 만에 그 비전은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. 1978 년, 라인강 하류 지방의 스트랄렌이라는 도시에 <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스트랄렌 유럽 번역가콜레기움>이 창설된 것입니다. 초기에는 사무엘 베케트, 하인리히 뵐, 막스 프리시가 우리 콜레기움의 후원자였습니다. <유럽번역가콜레기움 스트랄렌>은 문학 및 인문서 번역가를 위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작업센터입니다.

1978 년 이후에도 우리 콜레기움은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. 그 동안 2500 평방미터가 넘는 면적의 건물 안에 도서관과 회의실과 두 개의 주방 이외에도 30 개의 방이 구비되어 세계 각국에서 온 번역가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콜레기움의 심장부는 바로 110000 권의 도서를 갖춘 도서관입니다. 그 중에 25000 권은 275 개국어 및 방언(아프리카 어부터 줄루 어에 이르기까지)으로 써진 사전 및 참고자료이며, 60000 권은 전세계 문학작품의 원본과 번역본입니다. 또한 25000 권의 교양서도 소장되어 있습니다. 이로써 우리 콜레기움은 문학 및 교양서 번역가를 위한 세계 최대의특별 도서관입니다.

콜레기움은 번역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40 대의 첨단 컴퓨터와 외국어 용 키보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일년 365 일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WLAN/WiFi 시설을 통해 인터넷에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.

매년 전세계에서 약 750 명의 번역가가 스트랄렌을 방문하며 16000 권이 넘는 도서의 번역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.

스트랄렌은 네덜란드와 가까운 국경지역에 위치한 아주 아늑한 독일 소도시입니다. 꽃과 채소경작지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스트랄렌은 „꽃의 도시“라고 불립니다. 독일의 그 어떤 다른 지역에도 볼 수 없는 꽃과 채소 시장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.

주소:
Europäisches Übersetzer-Kollegium
Kuhstraße 15-19, 47638 Straelen
Deutschland
전화: 0049-2834-1068, 팩스 0049-2834-7544
전자우편: euk.straelen@t-online.de

Ins Koreanische übersetzt von Seon-Jeong Noh